

‘먹거리 정책’ 완주로컬푸드서 배운다

농산물 판로 확보·일자리 창출 중·소농 중심 ‘생존프로젝트’ 올해 전국 기관·자치단체 190곳 벤치마킹 방문 행렬 잇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가 대농 중심에서 중소농 중심으로, 도매시장 유통 구조서 로컬푸드 판매로 바뀌고 있다. 로컬푸드는 중·소농에게 제값받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체계다. 선도적인 곳이 전북 완주 로컬푸드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 및 푸드플랜을 배우려는 전국 기관·단체의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에만 정부 부처, 자치단체 등 190여 기관·단체에서 5700여 명이 완주군을 방문했다.

특히 최근 정부 혁신선도과제인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먹거리종합계획에 로컬푸드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완주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은 2008년 시작됐다. 군비 500억원을 들여 ‘완주군 농업 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를 수립한 것이 뿌리다.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존 프로젝트인 셈이다.

대농이 아닌 중·소농 중심의 지역농업 재편,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농민가공 활성화, 로컬푸드형 지역시장 창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회복 등에 중점을 뒀다.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을 위해 완주군은 농가 조직화해 계획 생산을 했다. 또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꾸러미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공공학교 급식센터 운영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완주 로컬푸드는 지역일자리

659명 직접 고용하고 2526농가가 참여하게 됐다. 여기에 외식·가공·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민들의 소득 보장,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의 먹거리정책은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가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성장을 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주 로컬푸드를 선도 사례로 삼아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단체 급식과

화천·포천 군 급식 사업으로 모델을 개발 중이다. 나주와 화천·포천 모델이 성과를 내면 이를 전국의 혁신도시, 군(軍)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 모델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공공기관 4곳에 공급했던 로컬푸드가 두 달만인 10월 10곳으로 2.5배 늘었고, 공급품목도 16개에서 71개로 4.4배 증가했다. 월 매출액은 454만원에서 2829만원으로 6.2배 뛰었으며, 공공기관 급식 출하농가도 9곳에서 47곳으로 5.2배 늘었다. 내년에는 100개 농가, 150개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의 군 급식은 2017년 지역 농산물 31% 공급에서 2022년 76.7%로, 경기도 포천은 33%에서 70.8%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군 급식을 마중물로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로컬푸드 유통비율을 올해 4.2%에서 내년 6%, 2022년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자 대표와 수요처 등이 참여해 가격·공급 규모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의 다양한 로컬푸드·직거래 우수 모델을 발굴해 소개하고,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로컬푸드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 완주 로컬푸드 모약점.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나선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6개 콜센터 업체와 업무협약

고객의 폭언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주시 각계가 손을 잡았다.

행정기관, 시민단체, 사업주,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지역 6개 콜센터 업체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업체는 DB 손해보험, KT 전북사업단, LB 휴넷 전주고객센터, 더케이 손해보험 전주센터, SK텔레콤 서비스탑 전주고객센터, 이스타항공 전주센터 등이다.

협약의 골자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각 주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다. 우선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 인권·성희롱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악성 민원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감정노동 관련 시민단체, 의료기관, 기업, 기타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구축해 감정노동 상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구축 무료서비스

전북도가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와이파이존이 구축된 곳은 전주 예술테마거리, 군산 선유도, 장수 방화동가족휴양촌 등 11개 시·군 39개 관광지다.

앞서 전북도는 관광객들이 데이터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SK텔레콤 등과 공동으로 7억여원을 투입해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내년에는 도서관과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시내버스 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해경, 해상범죄 특별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어패류 절도,

면세유 불법 수급 등이다.

도계(도와 도 사이의 경계) 침범과 어장 파손 등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경은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27일 여주시청 현관에서 권오봉(왼쪽) 여주시장이 임채준 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갓김치 후원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수 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갓김치 1000kg 기탁

여수시는 (사)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장과 회원들은 27일 여주시청 현관에서 갓김치 1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임채준 (사)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 장과 회원들은 27일 여주시청 현관에서 갓김치 전달식을 열고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갓김치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돌산갓김치생산자연합회는 84개 갓김치 제조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시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갓김치를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임채준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를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매년 연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연합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정읍시, 내년 120억 투입 하천정비사업

정읍시가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2019년 하천정비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감곡면 통석리 석정천 지방하천(1.29km)과 이평 오금소하천 등 6개 소하천(2.4km) 구간을 정비한다.

석정천 지방하천 정비에는 46억원이 투입되며 오금소하천 등에는 74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정비된다.

시는 또 3억원을 투입해 하천 준설과 자생수목 제거, 쓰레기 수거를 병행한다.

시는 올해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73억원을 투입, 지방하천(1.34km)과 소하천(2.1km)을 정비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19년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단 1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18일 전북도가 주관한 하천재방정비 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내죽도 방파제 정비 1차사업 완료

고창군은 도서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내죽도 방파제 정비 1차본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창지역 유일한 유인도인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는 4만9372㎡면적에 27가구, 56명이 거주하고 있다.

군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기존방파제를 27m 연장한다.

올해는 군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 방파제를 15m이상 연장했다.

군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잔여사업

비 1억4600만원을 투자해 나머지 12m 방파제의 연장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정박할 수 있는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민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4차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을 전액국비로 투입해 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바다둘레길 정비, 저온창고 건립 등 7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150평~200평 개별 매매 가능
- 주인직매. 010-2680-8685